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6) 조직검사상 WHO 분류법에 의한 구분은 1군(N=6)에서 class III이 2예, class IV가 3예, 혼합형(class IV+class V) 1예였고, 2군(N=13)에서 class II가 1예, class III가 1예, class IV가 9예, class V가 2예였으며, 3군(N=15)에서는 class III가 3예, class IV가 9예, class V가 3예로서 세군에서 모두 class IV가 많았다.

7) 사망은 1군에서는 없었고 2군에서 4예(10.3%), 3군에서 6예(26.1%)로 초진시 심한 단백뇨를 보인 군에서 많았다.

이상의 결과로 초진시 단백뇨를 보인 낭창성 신염 환자에서 단백뇨의 정도가 심할수록 사망률은 높았지만, 신손상의 진행속도는 치료방법등의 차이로 인해 예측하기가 어려웠다.

-37-

낭창성 신염에서의 신기능에 미치는 예후인자

경희의대 내과

이석훈 · 오동환 · 이택원

임 천 규 · 김 명 재

1979년 5월부터 1988년 3월까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내과에 입원하여 신생검상 낭창성 신염으로 진단받고, 6개월이상 면역억제요법을 받으며, 경과관찰한 14명환자의 임상적 경과 및 신기능에 미치는 예후인자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대상환자는 6개월이상 경과관찰한 낭창성 신염환자 14명이었으며, 평균 추적기간은 21개월(6개월~63개월)이었으며 미만성 증식성 사구체 신염이 7예, 막성신염이 2예, 국소성사구체신염이 1예 메산지움 증식성 사구체 신염이 1예였고, 연령은 20대, 30대 순이었고, 모두 여자 환자였다.

2) 면역억제요법(prednisolone, cyclophosphamide)을 받은 14명중 신기능이 정상을 유지했던 환자가 8명(Group I), 신기능이 정상이었다가 악화됐던 환자가 1명(Group II), 초진시 신기능이 저하되어 있었지만 안정상태로 유지된 환자가 4명(Group III), 말기신부전으로 진행된 환자가 1명(Group IV)였으며, 초진시 고혈압이 있었던 경우가 5예, 신증후군은 5예에서 있었다.

3) 활동성 지표는 미만성 증식성 사구체 신염에서의 미있게 증가되었다($p < 0.005$). 만성지표는 조직분류간에 차이가 없었다. 또한 활동성 지표와 24시간 노단백배설량 사이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p < 0.01$).

4) 신기능에 미치는 예후인자로 조직분류와 고혈압의 유무가 의미있었으며($p < 0.05$), 내원당시 신증후군은 신기능 저하군(Group II, III, IV)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만성지표는 신기능 저하군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5) 신기능 유지군과 신기능 저하군간에 임상적 등급, 활동성 지표, 혈청 C₃ 농도, Anti Ds DNA, 피부조직검 사소견, FANA형, 면역억제제 간의 차이는 없었다.

결론적으로 예후인자로 조직분류와 고혈압의 유무가 의미있었으며, 신증후군과 만성지표는 신기능이 저하된 군에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38-

낭창성 신염의 예후 및 사망원인

서울의대 내과

엄재호 · 김근호 · 김윤권 · 한진석

김성권 · 최성재 · 이정삼

낭창성 신염(LN)은 전신성 홍반성 낭창(SLE)의 예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로서, 감염과 더불어 중요한 사망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연구자들은 1973년 1월부터 1987년 11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한 15세 이상의 환자로 미국 류마티스 학회(ARA)의 진단 요건을 만족시키며 후향성 조사가 가능하였던 165명의 SLE환자중, ARA 진단요건에 의한 임상적 신증상이 있는 군(LN) 95명과, 없는 군(non-LN) 69명으로 나누어 추적기간, 누적 생존율, 사망원인, 사망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비교관찰하여 다음의 성적을 얻었다.

1) 진단적 유병기간은 SLE와 LN 모두 0개월에서 120개월까지 분포하였고 평균 유병기간은 SLE가 19.7±24.3개월이었고, LN이 19.9±22.6개월 이었다.

2) 진단후 추적 기간은 SLE와 LN 모두 0개월에서 144개월까지 분포하였고 평균 추적 기간은 SLE가 28.0±28.5개월, LN이 25.3±27.7개월이었다.